

## 김용민의 『키케로의 철학』에 대한 서평문

윤 비(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키케로는 철학사가들에게 오랫동안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인물이다. 유명철학사 개설서들을 들춰봐도 키케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로마시기 철학에 대한 요약과 언급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일 뿐이다. 중세 스콜라 철학서나 신학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키케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철학자도 역시 키케로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오늘날 키케로의 철학에 드리운 무관심은 그만큼 짙게 느껴진다.

언어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 논평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키케로로 라틴어를 배우고 살루스트로 라틴어 자격시험을 보고, 직업과 전공상 중세와 르네상스의 다양한 라틴어 문헌을 읽어야 하는 행운(?)을 누렸다. 여러 부류, 여러 시대, 여러 저자의 라틴어 산문들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혹은 별의 별 희안한 문서들과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논평자는 키케로의 라틴어 문체의 깔끔함과 유려함에 자주 감탄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을 알기 위해 문체를 음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키케로의 라틴어 산문에는 다른 저자들이 웅변적 효과나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끼워넣은 문법적 예외나 애매함이 없다. 영미권이나 서구권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번역이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이다. 한나 아렌트나 조르조 아감벤이 시도하듯 어원 분석으로부터 영감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번역서만으로도 키케로의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키케로에 드리워진 무관심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오해이다. 그것은 로마의 철학을 (키케로 스스로도 불평하듯이) 그리스 철학을 재료로 별 창조성 없이 빚어낸 혼합물, 키케로의 철학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적당히 섞고 여기에 스토아와 다른 학파의 아이디어로 맛을 낸 '짬뽕' 정도라고 가차없이 폄하했던 19세기 유럽 학자들의 오해이다. 시간은 흐른다. 그러나 종종 편견은 남는다.

키케로의 철학에서 무엇이 정치철학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다. 그는 처음부터 법률가이고 웅변가이고 정치가였다. 철학은 이러한 그의 관심사안에서 다시 정의되었다. 그래서 키케로의 철학 내지 정치철학을 꼭 집어내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하나 하나 질문을 따라가다보면 다 읽어야하게 되고 다 읽다보면 실이 엉크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키케로의 정치사상을 개괄하는 것은 적잖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김용민 교수의 저서에 대해 논평자가 추천문을 쓴다면 첫 문장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키케로의 사상을 큰 틀에서 개괄해보려는 드문 시도"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그 큰 틀에서 개괄한다는 것도 문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철학사만큼 따라가기도 힘든 것도 없다. 걸작이라고 할만한 작품은 많지 않고 종종 작품 전체가 망실된 경우도 있는데 막상 등장하는 철학자의 이름은 많고 계보도 복잡하다. 이것을 솜씨있게 정리해주면서도 주인공인 키케로와 그가 주로 대화하고 싶어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결선을 뚜렷하게 유지하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용민 교수의 저서가 등장하기까지 걸린 오랜 시간은 그렇게 설명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작업의 결과물을 평이한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감탄하게 된다. 이것이 김용민 교수의 저서를 처음 훑어보고, 그 다음 눈에 힘을 주고 읽어보고나서 논평자가 느낀 소회였다.

키케로 독해의 세 번째 도전은 이미 언급한대로 키케로의 사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가졌던 긴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지 못하고 키케로를 독해하는 것은 어렵다. 키케로를 읽다보면 결국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눈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 김용민 교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오래 연구해 온 학자이며, 그만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긴장관계에 예민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상은 책을 읽는 누구나 알 수 있듯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나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김용민 교수의 작품이 갖는 뛰어난 점이 이 세 사상가들의 관계를 잘 풀어내어갔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 정말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김용민 교수가 일반적인 예단이나 단순화에 빠지지 않고 키케로가 이들 그리스의 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갖는 긴장관계를 '실증적'으로 풀어갔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김용민의 교수의 작품에서는 키케로가 단지 '고대 그리스의 거인들의 어깨위에 앉은 난장이'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사상가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작업의 뒤에는 당연히 아쉬움이 있다. 김용민 교수에게 논평자가 아쉬움을 털어놓는 것은 탐구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 아쉬움은 바로 김용민 교수의 작품이 갖는 뛰어난 점으로 방금 이야기한, 키케로와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에서 기인한다. 결국 김용민 교수가 그려내는 키케로 역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에피고넨'이다. 키케로의 사상에 대한 그의 모든 관심과 애정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에피고넨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해서 에피고넨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우리는 크게보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논평자는 김용민 교수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던진다. 첫째는 그가 이미 키케로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여러 곳에서 벗어나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웅변가에 대한 키케로의 생각은 철학의 임무와 철학과 정치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사고를 표현한다. 그리고 김용민 교수는 이러한 키케로의 생각을 충실히 복원한다. '키케로의 사고가 얼마나 큰 철학적 열매를 맺었는가'를 묻는다면 논평자도 회의적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해도 그의 사고는 말과 행동, 정치와 철학적 사유간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논평자의 생각에는 키케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의 철학적 거인은 못되었지만, 에피고넨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 큰 산이었다.

키케로가 시도한 철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재정에서 철학과 정치의 전통적 관계는 전위된다. 인간의 존재와 행위, 철학적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키케로의 사상에서 철학적 사유와 실천, 이론과 행위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공히 '철학자가 정치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표현된다)이 메워진다. 국가는 도구가 아니며, 정치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최고의 삶의 실현태는 바로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삶에 존재한다. 어쩌면 논평자는 괜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용민 교수가 놓친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논평자는 김용민 교수가 키케로는 단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강에서 갈라져나온 지류가 아니라 그 지류에 다른 강줄기가 흘러들어 만들어진, 그 스스로 거대한 강이었다고 언명해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 키케로에 대한 우리시대의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 그만큼 누군가 그의 명예를 회복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당화 될 수 있는 '동정'이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김용민 교수의 저서를 내려놓는, 철학의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한 번은 던질 질문일 것이다.